

광주 남구, '시간우체국' 조성 구도심 활성화 속도

사직-양림 이어 '랜드마크' 구축
편지·사진·영상 최장 '백년' 보관
지정기부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전국적 관심이 쏠리는 남구로"

광주 남구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간우체국'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는 이곳은 최장 100년간 편지를 보관 후 발송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1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올해 연말 준공을 목표로 사직길 66-1번지 일대에 '사직동 시간우체국(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희생과 나눔, 공동체 정신을 간직한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과 전통이 담긴

'선비마을' 사직동을 연결해 구도심 지역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광주의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려는 김병내 남구청장의 역점사업이다.

시간우체국은 우편물을 최장 100년까지 보관하고 발송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우체국을 찾은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발송 일자를 선택해 미래의 자신이나 가족,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면 특수 타입의 캡슐에 보관되고, 편지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00년 뒤에 받아볼 수 있다.

자치단체에서 시간우체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개인정보 열람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문제없이 편지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화된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용객이 10년 후 자신에게 편지를 발송하기를 원할 경우, 남구가 이용객의 최신 주소를 검색해 해당 시점에 맞춰 편지를 발송하게 된다.

편지뿐만 아니라 소중한 추억이 담긴

영상물과 사진도 보관해 이용객들이 더욱 선명하게 '시간'을 간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남구는 시간우체국 인근에 '시간사진관'을 조성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시간우체국을 통해 접수·보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량의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을 고안하는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간우체국은 포르투갈의 대표 관광지인 '해리포터 서점' 웰루서점의 고풍스러운 내부 인테리어에서 착안해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개방형 목조 인테리어 건물로 조성된다.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지하 2층을 제외하고, 지하 1층에는 중장년층의 추억을 되새기는 7080살롱, 젊은 세대를 위한 MZ살롱과 DJ박스가 들어서며, 지상 1층에는 각종 이벤트 공간과 기념품 판매장이 마련된다. 지상 2층에는 우편물 접수

대와 타임캡슐을 보관하는 투명 수장고가 위치하고, 3층에는 유명인사와 역사적 인물들의 편지 등을 매입해 전시할 예정이다. 또 내부 곳곳에 설치된 고성능 음향시설을 통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는 음악 역시 시간우체국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구비와 함께 이용객들에게 소정의 이용료를 받아 충당하며, 지난해 6월 등록된 남구 고향사랑기부제 '시간우체국 지정기부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구는 기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간우체국 우표'나 '시간사진관 촬영권' 등 감성적이고 다채로운 답례품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기부 사업 등록 이후 반년여만에 약 3900만원의 기부금이 모이는 등 시간우체국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간우체국을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의 거리에는 통기타&국악살롱, 갤러리 살롱 등 6가지 주제의 건물을 조성하는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사직동을 비롯한 남구 구도심 일대가 세대 간 소통의 장소로 변모하고, 전국 단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광주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발돋움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시간우체국 조성사업과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는 올 연말 완료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내남구청장은 "시간우체국 건립과 살롱 드 사직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남구는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굴뚝 없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서 점주에게 마약 탄 술 건넨 60대 구속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점주에게 마약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2시44분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점주 B씨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에 손님으로 가끔 방문했던 A씨는 점주 B씨에게 같이 술을 한잔 하자 핑계를 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머니에 미리 챙겨온 필로폰을 B씨의 술잔에 탔다.

A씨가 건넨 술을 마시고 몸에 이상 반응을 느낀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3일 뒤인 지난해 11월11일 정밀 검사를 통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보복이 두려웠던 B씨는 경찰에 신고를

망설이다가 사건 발생 두 달 여 뒤인 지난 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방문, 신변보호 신청과 함께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추적에 나섰으나 설 연휴가 겹치면서 법정이 휴정기에 들어가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이유로 검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갔다.

지인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던 A씨는 지난 9일 오전 12시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주점에서 8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5시40분께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정상이 기자



기록 민주화의 길 37년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이 10일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1층에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일보 공동주관으로 열린 '기록, 민주화의 길 37년' 사진전을 둘러보고 있다. 14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 6월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재판 등 역대 대통령의 과오를 되짚으며 광주가 겪어온 역사적 순간과 이를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고찰하고자 마련됐다. 한편 광주도시공사에서는 관람객들과의 전시 소감 피드백을 위해 '구글 폼'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선착순 매일 20장의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김양배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티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휴집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